

익산 영만초, IB 후보학교 승인

도내 4번째... UOI·POI의 짜임새 있는 설계로 IB 익산지역 관심학교들 선도

익산 영만초등학교(교장 노태호)가 전북에서 4번째로 IB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IB 초등학교 과정 프로그램(PYP) 관심학교를 운영해 온 영만초가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다. 이는 관심학교를 운영한 지 1년여 만의 쾌거다.

영만초는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통한 수업혁신 의지를 담아 UOI, POI의 짜임새 있는 설계로 IB 익산지역 관심학교들을 선도에 왔다.

UOI(Unit Of Inquiry)는 자기주도적 탐구의 기본이 되는 탐구단일이며, POI(Program Of Inquiry)는 6개 학년의 탐구단원으로 구성된 탐구프로그램이다.



전북에서 4번째로 IB 후보학교 승인을 받은 익산 영만초등학교의 한 교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이를 바탕으로 영만초는 IB 프로그램의 학생주도 탐구 수업 시스템을 수용해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영만초는 동 지역과 면 지역의 접경 지대에 위치한 학교로 인근에 다양한 교육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탐구수업을 중심으로 한 IB의 교수·학습을 실천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 학교여서 이번 IB 후보학교 승인으로 원도심학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IB 본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단계인 월드스쿨 인증을 받을 때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IB 프로그램이 전북교육 수업혁신을 선도하고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년 원도심학교 10곳 신규 선정

전북자치도교육청, 원도심학교 교육발전협의회 개최

전주동북초·전주중앙중 등 초등학교 7곳·중학교 3곳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도 원도심학교로 전주동북초등학교 등 10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원도심학교는 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신도심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협의회를 통해 전주동북초·전주중앙중·전주성심여중, 군산의 미룡초·새만금초·소룡초·군산영광중, 익산의 이리동초·이리송학초 등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3개교를 새로 선정했다.

이들 원도심학교에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기초학력 신장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을 제공한다.

특히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원도심학교에 동일 행정동 큰 학교 학생의 전·입학을 허용하는 일방향 공동통학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은 물론이고, 소규모학교 활성화 및 학교 간 학생 수 적정 분배로 과대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절대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 원도심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도심학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이루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80억 기부 고귀한 뜻, 삼성문화회관에 아로새겨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

김정욱 교수 영산홀로 명명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개교 77주년을 맞아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을 '김정욱 교수 영산홀'로 명명하고, 지난 14일 (재)김희경유림정신문화재단 김경숙 이사장을 초청해 명명식을 거행했다.

15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전북대에 학생들이 유럽 정신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의 장학금을 약정하고, 이듬해인 2022년에는 삼성문화회관의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60억 원의 톨 큰 기부를 했다. 김 이사장의 기부액은 개인 기부로는 전북대 역사상 최고액이다.

이러한 김 이사장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전북대는 삼성문화회관의 대공연장에 김 이사장의 이름을 아로새긴 것이다.

특히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전북대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했던 김 이사장은 2001년 건국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직을 사임한 뒤 모친과 함께 우리나라의 유럽 인문학 발전을 위해 '재단법인 김희경유림정신문화재단'을 설립, 모친의 유지를 이어 2대 이사장으로서 후학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개교 77주년을 맞아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을 '김정욱 교수 영산홀'로 명명하고, 지난 14일 (재)김희경유림정신문화재단 김경숙 이사장을 초청해 명명식을 거행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을 펼쳐왔다. 약정 이후 김 이사장은 당해 20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 10억원, 올해 10억원 등 총 40억원을 기부했다. 이를 통해 삼성문화회관 시설 개선이 탄력을 받으며 추진됐다.

김정욱 이사장은 "지역 대표 문화 시설인 삼성문화회관에 제 이름을 딴 홀이 생기다니 더없는 영광"이라며 "전북대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득하고, 지역민들

이 문화적 향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 대학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 준 김정욱 이사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김 이사장님이 보내준 고귀한 뜻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꿈을 펼치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플래그십대학으로 힘 없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교-대학 연계 '학교 밖 교육' 활성화

전북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협의회 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교육부-교육청-대학 간 고교학점제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방안 안내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안내 △(가칭)대학 학점인정 과목 개설·운영 설명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학교 밖 교육은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온·오프 공동 교육과정이나 전북온라인학교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역사회 기관이나 대학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고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대표적인 운영 형태인 학교 밖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전북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으로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수요를 충족하면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교-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북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지역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베트남 유학생들, 지역사회 환경 보호 활동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은 지난 11일 전주 전잠산 일대에서 베트남 유학생들과 '줍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줍깅'은 '줍다'와 '하이킹'의 합성어로, 걷는 동안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이번 활동은 유학생들이 '그린 위킹'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쓰레기를 수거했다. 참여 유학생들은 20명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1365 자원봉사 인증도 받았다.

베트남 유학생인 응원프영타인 박사 과정 학생은 "봉사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뿌듯함과 함께 1365 인증 등을 통한 경험 이벤트도 진행된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들의 학술 자료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지식의 교류와 활발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학술전자정보박람회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제교류원 심영국 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유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중앙도서관, 내일 '학술전자 정보 박람회'

국내의 주요 학술 DB 제공사 22개업체 참여... 행사 다채

대학 구성원 전자자료 활용 통한 연구, 학습지원 강화 초점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오는 17일 1층 중도리온지에서 '2024 JNU 학술전자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람회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자료 서비스와 다양한 학술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소개하고, 연구 및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주요 학술 DB 제공사인 클래리베이트와 엘스비어, 엠스코, 디비피아, 한국학술정보 등 22개 국내외 우수 전자정보 DB 업

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 업체들은 이날 중앙도서관 1층에 부스를 설치하고, 학술전자 정보 활용 방법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 자료 활용법을 안내한다.

더불어 전자정보 부스 투어, 경품 추첨 등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5개 이상부스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이패드와 애플워치, 에어팟 등 다양

한 경품에 응모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전자 자료 활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퀴즈 풀이 참여나 SNS 참여 인증 등을 통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들의 학술 자료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지식의 교류와 활발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학술전자정보박람회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사범대학 부설고, '2024 별빛캠프' 성료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교장 홍덕인)는 지난 11~12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2024 별빛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2학년 학생 130여 명이 참여한 별빛캠프는 과학적 탐구와 예술적 창의성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학습과 여가를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별빛캠프는 텐트 설치로 시작해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별 관측과 별자리

설명에 이어졌다. 다음날 아침 열린 폐회식에서는 텐트를 가장 아름답게 꾸민 팀에게 '텐트 아름다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별빛캠프를 기획한 인성인권안전부장 소순중 교사는 "학교에서 '학습'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면서 "학생들과 함께 밤공기를 마시고 밤하늘을 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11~12일 진행된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024 별빛캠프'.

홍덕인 교장은 "텐트를 설치하고 별을 관찰하며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경험으로 연결하는 모습에서 학생들의 호기심과 성정이 느껴졌다"면서 "별빛캠프가 슈퍼스타를 키우는 전

주사대부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학생들의 호기심과 가능성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생태원 텍스타일디자인 공모 입상 '쾌거'

국립군산대 산업디자인학부 학생들, 대상·은상·특선 등 수상

국립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2학년 김유성 학생이 국립생태원이 주최한 제1회 국립생태원 텍스타일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환경부장관상'(상금 500만원) 수상했고 2학년 조현아 학생은 '은상-국립생태원장상'(상금 100만원)을, 4학년 이상진 학생과 2학년 박예슬 학생은 '특선'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유성 학생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환갈채나무의 특징인 붉은 줄기와 하얀 열매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와 고급스러움을 우아하고 세련된 텍스타일디자인으로 표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김유성 학생 작품이 환갈채나무의 색감과 생태적 특성을 잘 표현했으며, 독창성과 실용성이 우



수하며 특히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생태·환경의 발견'을 주제로 '제1회 국립생태원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11일 국립생태원 본원에서 열었다.

/군산·이재훈 기자